

# 한국어 전칭양화사-부정어 구문의 중의성 해석에 나타나는 작용역 선호 양상\*

곽혜영\*\*, 이미선\*\*\*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Kwak, Hye-Young & Mison Lee. 2010. Interpretive Preferences in L1 Korean Universal Quantifier-negation Patterns.**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5-3, 531-542. It is well known that a sentence containing both a negative and a quantifier, such as *Mary didn't eat all the cookies* is ambiguous: if *all* has scope over *not*, the sentence has the full set interpretation (i.e., Mary didn't eat any cookies.) while it has the partitioned set interpretation (i.e., Mary ate some of the cookies.) if *not* has wide scope. Interestingly, it has been reported that children strongly prefer one of the two interpretations across languag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Korean L1 children's and adults' preferences in interpreting Korean <motun 'all/every' + Object NP + an 'not'> sentences, and account for those interpretive preferences by applying the processor-based emergentist account proposed by O'Grady (2005, 2008), which claims that the scope preference can be explained by the processor's role to minimize the processing load. **(Korea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Key words:** scope, universal quantifier, negation, processor, Emergentism, interpretive preferences, Korean

## 1. 서론

아동의 모국어 습득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는 어떻게 아동이 그렇게 빨리, 또 그렇게 쉽게 모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 질문은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에 있었고, 이를 설명하려는 다양한 가설들이 제시되었다. 이 가설들은 크게 두 가지 대조되는 가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 UG)으로 대표되는 생득주의 가설(nativism)로서, 아동이 타고난 문법 범주와 원칙들을 이용하여 언어를 습득한다고 주장한다. 이 가설은 특히 충분치 않은 언어입력(input)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언어 현상조차도 아동이 쉽게 습득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 유익한 논평과 제안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감사드린다.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 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KRF-2007-327-A00353).

\*\* 제1저자

\*\*\* 교신저자

다양한 이유와 증거를 가지고 UG에 기초한 습득 가설을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예: Elaman et al. 1996; Hawkins 2004; Jackendoff 1988, 2002; O'Grady 2005; Tomasello 2003, 등). 이들은 공통적으로 언어란 인간의 생리적 요인이나 인지적 기능, 언어처리(*processing*), 작업기억(*working memory*), 사회적 상호작용, 화용 규칙, 언어 입력의 특징 등과 같은 후천적, 비언어적인 요인들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생겨난다("emerge")고 주장하는데, 따라서 이러한 견해는 'Emergentism'으로 통칭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의 언어습득을 설명하기 위해 Emergentism이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특히 O'Grady(2005, 2008)가 강조한 언어처리(*processing*)의 중요성을 전칭양화사(*universal quantifiers*)와 부정어를 포함하는 문장의 이해양상을 중심으로 알아보하고자 한다.

양화사와 부정어를 동시에 포함하는 아래 (1)과 같은 문장은 작용역(*scope*)에 따라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중의적 문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1) Mary didn't eat all the apples.

즉, 부정어 *not*이 대작용역(*wide scope*)을 갖는 경우 부분부정의 의미로 해석되어, Mary가 문맥상 존재하는 사과들로 구성된 집합 중 일부만 먹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전칭양화사 *all*이 대작용역을 갖는 경우에는 문맥상 존재하는 사과들의 집합 중 어떤 사과도 먹지 않았다는 전체부정의 의미로 해석된다.

아동의 양화사-부정어 구문 습득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모국어를 습득하는 아동은 (1)과 같은 중의적인 문장을 이해할 때 가능한 의미들 중 어느 하나를 강력히 선호한다(Conroy 2008; Lidz & Musolino 2002, 2005/6; Musolino 1998; Musolino, Crain & Thornton 2000; Musolino & Lidz 2006; Su 2003). 예를 들어,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5세 아동의 경우, 아래 (2)와 같이 *every*를 포함한 명사구가 주어에 위치하는 부정문을 해석할 때 전체부정의 의미(2b)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nroy 2008; Musolino 1998; Musolino et al. 2000; Musolino & Lidz 2006).

(2) Every horse didn't jump over the fence.

a. 부분부정의 의미:

'모든 말이 울타리를 뛰어 넘은 것은 아니다. 일부의 말들만 뛰어 넘었다.'

b. 전체부정의 의미:

'어떤 말들도 울타리를 뛰어 넘지 않았다.'

Su(2003)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45세 아동들도 수량양화사(*numeral quantifier*)와 부정어를 포함하는 (3)과 같은 문장을 수량양화사가 대작

용역을 갖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 (3) xiao nanhai meiyou qi liang-tou niu.  
 little boy did not ride two-CL cow  
 'The little boy didn't ride two cows.'
- a. 수량양화사가 대작용역을 가지는 의미:  
 '작은 소년이 타지 않은 특정한 말이 두 마리 있다.'
  - b. 부정어가 대작용역을 가지는 의미:  
 '작은 소년이 말을 두 마리 탄 것은 아니다. 두 마리가 아닌 다른 수의 말을 탔다.'

이렇게 아동이 어느 한 의미를 선호하는 것은 여러 언어에서 관찰되는 비교적 언어보편적 현상이다. 이러한 편향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설명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언어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O'Grady의 Emergentism에 의하면 이러한 편향성은 언어처리 비용(processing cost)을 낮추려는 언어처리기(processor)의 역할로 요약할 수 있다.

## 2 언어처리에 기초한 Emergentism 가설

O'Grady(2005, 2008)는 문장을 이해하거나 발화할 때 순차적 어순에 따라 언어입력을 처리하는 언어처리기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언어처리기는 문법 원칙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문장요소들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작업기억에 대한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따라서 언어습득에 있어서도 언어처리기가 담당해야 하는 작업기억의 부담이 적을수록 습득이 용이하다고 주장한다.

언어처리기가 위 (1)-(3)과 같은 중의적 문장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와 관련하여 O'Grady et al.(2009, p.75)은 다음에 오는 두 가지의 가정을 전제한다.

- (4) a. As the processor works its way through a sentence, it immediately assigns each NP an interpretation, based on available clues such as position, determiner type, case marker, context, and so forth.
- b. The revision of a previously assigned interpretation is computationally costly since it disrupts the normal linear operation of the processor which forms and interprets sentences in real time under conditions that value quickness.

이 가설에 의하면, 언어처리는 문장요소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명사구의 문장 내 위치, 한정사 종류, 격, 문맥 등과 같은 다양한 단서를 활용하여 그 명사구에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데 이미 부여된 명사구의 의미를 수정하여 재해석하는 경우에는 처리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재해석 과정은 신속하게 문장요소들을 결합하고 해석하는 언어처리의 순차적 처리 기능에 역행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명사구가 문두에 나오는 아래 (5)와 같은 문장의 처리과정을 살펴보자.

(5) [<sub>NP</sub> All the boys] didn't climb the tree.

언어처리가 *all, the, boys*를 결합하여 명사구 *all the boys*를 형성하면 '문맥상 존재하는 소년들로 이루어진 집합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이라는 의미를 우선 부여한다. 이 의미를 수정하지 않은 채 나머지 문장요소들 *didn't climb the tree*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면 (5) 문장은 전체부정의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부정어가 대작용역을 갖는 부분부정 의미로 해석되려면 명사구의 재해석 과정이 필요하다. 즉, 명사구 *all the boys*에 먼저 '문맥상 존재하는 소년들로 이루어진 집합에 속하는 모든 구성원'이라는 의미가 부여되고 이어서 부정어가 결합되어 대작용역을 허용하는 경우, 그 명사구에 이미 부여된 의미는 '전체 집합의 일부에 속하는 소년들'이라는 의미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해석 과정은 작업기억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따라서 처리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언어처리 과정을 가정하면, 모국어습득 과정에 있는 아동이 양화사-부정어 구문의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의미를 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그 구문을 해석하기 위해 요구되는 처리비용이 높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미 의미가 부여되었던 명사구를 재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높아지는 의미구조는 재해석이 필요 없는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습득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의성을 갖는 양화사-부정어 구문의 의미를 해석할 때, 처리비용이 높은 작용역의 의미보다 처리비용이 낮은 작용역의 의미를 먼저 습득하고, 습득한 후에도 더 선호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3. 한국어의 양화사-부정어 구문

한국어의 양화사-부정어 구문의 습득 및 이해 양상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많지 않은데, 이들은 양화사를 포함하는 명사구의 문장 내 위치(주어 혹은 목적어)나 부정어의 종류를 변수로 하여 그 중의성 여부와 선호양상을 조사하였다(예: Han, Lidz & Musolino 2007; Kwak 2010; Lee 2009). Han et al.(2007)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성인과 4세 아동이 전칭양화사 ‘모든’과 부정어를 포함하는 (6), (7)과 같은 문장을 해석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 (6) 전칭양화사를 포함하는 명사구가 주어인 경우
  - a. 장형 부정(long-form negation):  
모든 말이 울타리를 넘지 않았다.
  - b. 단형 부정(short-form negation):  
모든 말이 울타리를 안 넘었다.
- (7) 전칭양화사를 포함하는 명사구가 목적어인 경우
  - a. 장형 부정(long-form negation)  
쿠키몬스터가 모든 쿠키를 먹지 않았다.
  - b. 단형 부정(short-form negation)  
쿠키몬스터가 모든 쿠키를 안 먹었다.

Han et al.은 부정어가 대작용역을 갖는 의미와 양화사가 대작용역을 갖는 의미가 참이 되는 두 가지 종류의 상황을 짧은 이야기로 먼저 제시한 후 위와 같은 문장들을 제시하여, 실험참가자가 이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조사하였다.

성인참가자들에게는 양화사를 포함하는 명사구가 주어 위치에 나오는 (6)의 문장과 목적어 위치에 나오는 (7)의 문장 형태가 모두 제시되었는데, 성인들은 부정어의 종류나 양화사의 위치에 관계없이 전체부정의 의미를 선호하였다. 양화사를 포함하는 명사구가 주어 자리에 위치하는 (6)과 같은 문장에 대해서는 전체부정의 의미, 즉 양화사가 대작용역을 갖는 ‘어떤 말들도 울타리를 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선호하였다. 양화사를 포함하는 명사구가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는 (7)과 같은 문장에 대해서도 양화사가 대작용역을 갖는 ‘쿠키몬스터가 어떤 쿠키도 먹지 않았다’라는 전체부정의 의미를 선호하였다. 한편 아동에게는 목적어 자리에 양화사가 오는 (7)과 같은 문장들만 제시되었는데, 아동들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양화사가 대작용역을 갖는 전체부정의 의미를 선호하였다.

Lee(2009)도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성인들이 전칭양화사 ‘모든’과 부정어를 포함하는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조사하였는데, Han et al.과 달리 실시간 읽기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성인들이 아래 (8)과 같은 문장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간별로 측정함과 동시에, 주어진 문맥에 따라 실험문장의 참/거짓 여부를 판단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 (8) a. 어젯밤에/ 서희가/ 모든/ 촛불을/ 켜지 않았다고/ 이야기는/ 말한다.
- b. 어젯밤에/ 서희가/ 모든/ 촛불을/ 안 켜다고 / 이야기는/ 말한다.
- 구간1  구간2  구간3  구간4    구간5          구간6  구간7

실험 결과에 의하면, 성인참가자들은 (8)과 같은 문장을 읽을 때 부정어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체부정의 의미를 더 선호하였다. 또한, 이 문장들을 전체부정의 의미로 판단할 때 걸리는 시간보다 부분부정의 의미로 판단할 때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특히 부정어(‘안’ 또는 ‘-지 않’)와 동사가 함께 나오는 구간 5에서 시간 차이가 두드러져서, 전체부정의 의미로 해석할 때 보다 부분부정의 의미로 해석할 때 읽기 시간이 훨씬 길었다. 이는 부분부정의 의미를 부여할 때 구간 5에서 재해석이 일어나고, 따라서 처리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Kwak(2010)은 수량양화사와 단형부정형을 포함하는 구문의 중의성과 작용역 선호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45세 아동들이 (9)와 같은 구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조사하였다.

(9) 도라가 조개를 두 개 안 주웠다.

실험 결과, 한국아동들은 수량양화사가 대작용역을 갖는 의미(‘도라가 줍지 않은 특정한 조개가 두 개 있다’)를 부정어가 대작용역을 갖는 의미(‘도라가 조개를 두 개 주운 것은 아니다. 두 개가 아닌 다른 수의 조개를 주웠다’)보다 훨씬 강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들은 모두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성인과 아동이 양화사와 부정어를 포함하는 문장을 이해할 때 양화사가 대작용역을 가지는 의미를 더 선호함을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언어처리 가설에 의하면 이러한 선호 양상은 언어처리가 관련 명사구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재해석이 일어나지 않는 의미를 먼저 습득할 뿐만 아니라 습득한 후에도 더 선호하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쿠키몬스터가 모든 쿠키를 안 먹었다’라는 문장의 경우, 전체부정의 의미는 명사구 ‘모든 쿠키’에 부여된 ‘문맥상 존재하는 쿠키들의 집합에 속하는 모든 쿠키’라는 의미가 재해석이 필요 없이 유지된다. 반면, 부분부정의 의미로 문장을 해석할 경우에는 처음에 부여된 ‘문맥상 존재하는 쿠키들의 집합에 속하는 모든 쿠키’라는 의미가 ‘전체 집합의 일부에 속하는 쿠키’라는 의미로 재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처리비용이 높아지게 되어 작업기억에 더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처리비용이 낮은 전체부정의 의미가 선호되는 것이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성인화자의 실시간 언어처리 양상을 조사한 Lee(2009)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전체부정의 의미와 부분부정의 의미 사이에 나타나는 처리비용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한국어의 양화사-부정어 구문의 습득 및 이해에 관한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연구 외에는 거의 없다. 특히 한국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아동의 전칭양화사-부정어 구문의 이해 양상과 관련해서는 Han et al. (2007)의 연구가 유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습득 아동의 전칭양화사-부정어 구문에 대한 이해 양상을 조사하여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된 한국아동들의 선호양상이 일반화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O'Grady가 제안한 언어처리비용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한다.

## 4. 연구방법

### 4.1 실험 1

#### 4.1.1 피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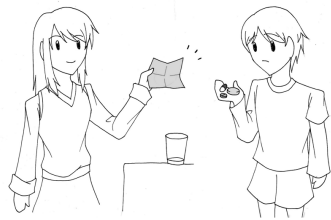
서울에 거주하는 5;0~6;9세의 한국 아동 20명이 첫 번째 실험에 참가하였다.

#### 4.1.2 실험 절차 및 자료

아래 예시와 같은 간단한 이야기를 이용하여 아동이 전체부정과 부분부정 중 어떤 의미를 선호하는지 알아보았다. 배경이 되는 상황을 묘사하는 각 이야기와 실험문장은 구어로 제시되었다. 이야기와 실험 문장을 들려줄 때는 노트북 컴퓨터의 모니터로 해당 그림을 함께 보여 주었다. 각 이야기가 끝나면 아동에게 이어지는 실험 문장이 선행하는 이야기를 올바르게 요약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지시하였다.

##### 예시 1: 전체부정의 의미를 지지하는 상황과 실험 문장

영희와 민수가 밖에서 눈싸움을 하고 나서 감기에 걸렸다. 엄마가 영희와 민수에게 각각 약을 세 개씩 주면서 먹으라고 한다. 영희는 바로 약 세 개를 먹는다. 민수는 약을 집어 들지만 두 개는 너무 커서 안 먹고, 다른 한 개도 너무 썩던 기억이 나서 안 먹는다.



실험 문장: 민수가 모든 약을 안 먹었어요.<sup>1</sup>

1 본 실험에서는 '민수가 모든 약을 먹지 않았어요'와 같은 장형 부정형은 포함하지 않았다. Han et al.(2007)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들의 특정의미에 대한 선호도는 부정어의 종류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Kwak(2010)의 유도발화 실험에서는 45세 아동들이 단형부정형만을 발화한

예시 2: 부분부정의 의미를 지지하는 상황과 실험 문장

영희와 민수가 밖에서 눈싸움을 하고 나서 감기에 걸렸다. 엄마가 영희와 민수에게 각각 약을 세 개씩 주면서 먹으라고 한다. 영희는 바로 약 세 개를 먹는다. 민수는 약을 집어 들지만 두 개는 너무 커서 안 먹는다. 나머지 한 개는 쓸 것 같지만 그래도 물을 많이 마시고 먹는다.



실험 문장: 민수가 모든 약을 안 먹었어요.

실험은 각 상황에 해당하는 실험 항목 3개씩과 4개의 filler 항목을 합쳐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실험에 앞서 2개의 연습 항목이 제시되었다.

4.1.3 결과 및 논의

실험 1의 결과는 아래 <표 1>로 요약할 수 있다.

<표 1> 한국어 습득 아동의 작용역 선호 양상

전체부정 상황 (모든 약을 남김)		부분부정 상황 (한 개의 약만 먹음)	
'올바른 요약 으로 응답	'잘못된 요약 으로 응답	'올바른 요약 으로 응답	'잘못된 요약 으로 응답
98%	2%	25%	75%

<표 1>에서 보듯이, 아동은 전체부정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즉 예시 1과 같은 전체부정 상황에서 '민수가 모든 약을 안 먹었어요'라는 중의적 문장을 들으면 98%의 경우 약을 하나도 먹지 않아서 모든 약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한편 부분부정 상황에서도 25%만 부분부정으로 해석하여, 전체부정으로 해석하는 경향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19)=8.53, p<.001$ ). 즉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본 실험에서는 단형부정형만을 조사하였다.



‘민수가 모든 약을 안 먹었어요.’라는 문장을 들으면, 그 상황이 예시 2와 같은 부분부정 상황이라도 일부 약만 먹고 일부는 먹지 않았다는 부분부정의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약을 하나도 먹지 않았다는 전체부정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다.

## 4.2 실험 2

### 4.2.1 피험자

42 명의 대학생이 두 번째 실험에 참가하였다. 이들은 모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외국 거주 경험이 6개월 미만이었다.

### 4.2.2 실험 절차 및 자료

성인들의 작용역 선호 경향은 청취 시험 방식으로 측정되었다. 실험 1에서 사용된 것과 유사한 이야기와 실험 문장이 정상 속도로 사전에 녹음되었고, 피험자는 이를 청취함과 동시에 설문지에 제시된 요약 그림을 보면서 실험 문장이 이야기를 올바르게 요약하는지 판단하는 과제를 수행하였다. 실험은 전체부정 상황에 해당하는 4개의 항목과 부분부정 상황에 해당하는 4개 항목, 10개의 filler 항목을 포함하여 총 1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고, 실험에 앞서 2개의 연습 항목이 제시되었다.

### 4.2.3 결과 및 논의

실험 2의 결과는 아래 <표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성인의 작용역 선호 양상

전체부정 상황 (모든 약을 남김)		부분부정 상황 (한 개의 약만 먹음)	
‘올바른 요약’ 으로 응답	‘잘못된 요약’ 으로 응답	‘올바른 요약’ 으로 응답	‘잘못된 요약’ 으로 응답
97%	3%	21%	79%

<표 2>에서 보듯이, 성인들도 ‘민수가 모든 약을 안 먹었어요’라는 중의적 문장을 전체부정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예시 1과 같은 전체부정 상황에서 이 문장을 들으면 97%의 경우 모든 약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반면 예시 2와 같이 부분부정 상황이 주어진 경우에도 21%만이 한 개의 약만 먹은 부분부정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부분부정에 비해 전체부정을 선호하는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41)=12.49, p<.05$ ).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아동들이 전칭양화사 '모든'을 포함하는 목적어 명사구와 부정어 '안'을 함께 포함하는 구문에 대해 전체부정의 의미를 선호함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앞서 소개한 Han et al.(2007)의 동일한 구문에 관한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한국어를 습득하는 아동은 일반적으로 양화사가 대작용역을 갖는 전체부정의 의미를 먼저 습득하고, 먼저 습득한 의미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문맥적 단서가 주어질 때 성인들도 같은 선호 양상을 보여서, 먼저 습득된 구조는 성인이 된 후에도 선호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동과 성인이 '민수가 모든 약을 안 먹었어요.'와 같은 문장을 전체부정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은 위에서 언급된 처리비용의 부담이 적을수록 습득이 용이하다는 O'Grady et al.(2009)의 주장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험문장을 부정의 의미로 해석하려면 우선 목적어 명사구 '모든 약'을 '문맥상 존재하는 약들로 구성된 집합에 속하는 모든 약'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과정이 선행된다. 이후, '안 먹었다'의 부정어를 접하면서 순차적으로 명사구 '모든 약'에 부정의 의미를 더하면 전체부정의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부정어 '안'을 접하면서 부정어가 대작용역을 갖는 부분부정의 의미로 해석하려면, '문맥상 존재하는 약들로 구성된 집합에 속하는 모든 약'의 의미를 '전체 집합의 일부에 속하는 약'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후 그 일부에 대해서만 부정의 의미를 적용하는 과정으로 언어처리가 일어난다. 따라서 전체부정의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이 부분부정의 의미에 비해 처리비용의 부담이 적으므로, 한국어 아동과 성인이 전체부정의 의미를 선호하는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 5. 결론

전칭양화사가 포함된 목적어 명사구와 부정어가 함께 나오는 구문은 전체부정과 부분부정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한국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아동은 전체부정의 의미를 강하게 선호하는 반면, 부분부정의 의미를 도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편향적 선호도는 성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관찰되어서,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한국어의 경우 전체부정의 의미가 선호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 결과는 작업기억의 부담이 적고 언어처리 비용이 적을수록 습득이 용이할 뿐 아니라 습득된 후에도 더 선호된다는 언어처리 비용 가설을 지지한다. 즉, 한국어의 경우, 전체부정의 의미는 전칭양화사가 포함된 목적어

명사구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데, 따라서 처리과정이 더 쉽고 처리비용이 적기 때문에 습득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습득된 후에도 선호되는 것이다. 이 가설의 보편적 타당성은 다른 종류의 양화사를 포함하거나 또는 구조적 이유로 중의성을 갖는 다양한 구문의 의미를 아동이 어떻게 습득하고 어떤 의미를 더 선호하는지 알아보는 언어간 비교 연구를 통해 보다 명확히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Conroy, Anastasia Marie. 2008. *The role of verification strategies in semantic ambiguity resolution in children and adult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 Elman Jeffrey L., Elizabeth A. Bates, Mark H. Johnson, Annette Karmiloff-Smith, Domenico Parisi, and Kim Plunkett. 1996. *Rethinking Innateness: A Connectionist Perspective on Development*. Cambridge, MA: MIT Press.
- Han, Chung-hye, Jeffrey Lidz and Julien Musolino. 2007. "V-raising and grammar competition in Korean: Evidence from negation and quantifier scope," *Linguistic Inquiry* 38, 1-48.
- Hawkins, John. 2004. *Efficiency and Complexity in Grammars*.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Jackendoff, Ray. 1988. "Why are they saying these things about u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6, 435-442.
- Jackendoff, Ray. 2002. *Foundations of Language*.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Kwak, Hye-Young. 2010. *Scope interpretation in first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Numeral quantifiers and nega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 Lee, Sunyoung. 2009. *Interpreting ambiguity in first and second language processing: Universal quantifiers and negatio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 Lidz, Jeffrey and Julien Musolino. 2002. "Children's command of quantification," *Cognition* 84, 113-154.
- Lidz, Jeffrey and Julien Musolino. 2005/6. "On the quantificational status of indefinites: The view from child language," *Language Acquisition* 13, 73-102.
- Musolino, Julien. 1998. *Universal grammar and the acquisition of semantic knowledge: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into the acquisition of quantifier-negation interaction in English*.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 Musolino, Julien, Stephen Crain and Rosalind Thornton. 2000. "Navigating negative quantificational space," *Linguistics* 38, 1-32.
- Musolino, Julien and Jeffrey Lidz. 2006. "Why children aren't universally successful with quantification," *Linguistics* 44, 817-852.

- O'Grady, William. 2005. *Syntactic carpentry: An emergentist approach to syntax*. Mahwah, NJ: Erlbaum.
- O'Grady, William. 2008. "The emergentist program," *Lingua* 118, 447-464.
- O'Grady, William, Miseon Lee and Hye-Young Kwak. 2009. "Emergentism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W. Ritchie & T. Bhatia, eds., *The New Handbook of Second Language Acquisition*, 69-88. Bingley, UK: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 Su, Yi-ching. 2003. "Children don't always follow c-command as a scope principle," Paper presented at GLOW 2003 Workshop on Language Development. Lund, Sweden.
- Tomasello, Michael. 2003. *Constructing a language: A usage-based theory of language acquis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33-791] 서울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Email: mlee@hanyang.ac.kr

Received: September 1, 2010  
Revised: September 14, 2010  
Accepted: September 25, 2010